



1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출범

도교육청, 전북중기청 등 도내 5개 유관기관과 협약... 지역인재 양성 상호 협력기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은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개막식에 맞춰 진행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 도내 5개 유관기관 및 직업계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북교육청과 5개 유관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등직업교육 협

력체계 구축 △직업계고 지역인재 양성 △전략산업 분야 심화교육 지원 △일자리 발굴 및 취업 매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기술인재의 성장 경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월 교육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 기능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 대학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기반의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직업계고-지역기업 선취업-지역대학 후학습으로 이어지도록 직업계고 학생들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고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직업교육박람회는 10~11일 이틀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펼쳐진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학사단위구조개편안 확정

65개 학과·4개 학부·8개 전공... 학생·지역사회 목소리 반영 소프트웨어융합대학·데이터공학과·웹문예창작전공 등 신설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 및 학부제 개편 등 학사단위구조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원(2,512명) 내에서 65개 학과, 4개 학부, 8개 전공 개편으로 학생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사단위구조개편을 시행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신설했으며,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공학과를 신설했다. 또 인문대학을 인문콘텐츠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웹문예창작학과를 신설했다. 학부제개편을 통해 웹문예창작전공도 신설했다. 더불어,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해 농생명식품 분야에 식품영양학과, 미래신소재·에너지 분야에 신소재화학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전공 등을 새롭게 개편해 학사단위에 반영했다.

이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미래융합대학에 로컬벤처학부와 진환경자동차학과, 반려동물학과, 미래트바 학부를 신설했다. 로컬벤처학부는 힐링레저전공 및 로컬비즈니스전공으로 구성되며, 미래트바학부는 기술경영공학전공 및 문화콘텐츠전공으로 구성된다. 황인수 교육부총장은 "학생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새로운 학문세대의 양성을 위해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학사단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학사구조개편안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회를 거쳐 6월 중 학칙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올해 입시부터 적용돼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기술 분야 지원·인성교육 상담사 확충 등 논의

서 교육감, 정읍 학부모 교직원 등과 교육공감 토크



전북도교육청은 9일 정읍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일 정읍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규희 교육장과 전북도의회 임승식·염영선 의원이 함께한 이날 공감 토크는 현장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자는학교 살리기 △기초학력 책임제 △교권과 학생인권 균형과 조화 등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학부모는 "기초학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에 공감한다"면서 "특히 국·영·수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학부모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도 좋지만 인성교육을 상담하는 교사가 부족하다"면서 "상담교사를 많이 배치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농촌유학을 왔다고 소개한 학부모는 "농촌유학 엄마들끼리 함께

상담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농촌유학 학부모 모임에 대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함께 만나 농촌유학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어서 "전체 교사 수가 묶여 있어 마음대로 상담교사를 늘릴 수가 없다"면서 "정규 교사 배치가 어렵다면 전문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교원 기초학력 지원 역량 강화

도교육청, 내일 기초학력 보정 활동 이해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2일 전주세계평화의전당 양항검침에서 초·중·고교 학습지원 담당교원 8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정 활동의 이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기초학력 진단 이후 학생 맞춤형 보정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따른 향후 보정활동 안내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보충 학습·지도 자료 '늘봄이'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용역 협약처인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부소장인 김선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특히 올해 4월 기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탑재된 3R's·교과 보정 활동에 활용가능한 콘텐츠는 총 27종이다. 초·중·고등학교 및 무학년에서 활용 가능하며, 진단검사와 향상도 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맞춤형

보정자료 배포도 할 수 있다. 초등 1~2학년은 기초 국어, 기초 수학 보정자료가 제공되며, 초등 3학년은 3R's(읽기, 쓰기, 셈하기), 초등 4~6학년은 3R's(읽기, 쓰기, 셈하기)와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보정자료가 제공된다. 또 중학교는 3R's(읽기, 쓰기, 수와 연산)와 교과(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의 보정자료가 제공되고, 고등학교는 3R's(읽기, 쓰기, 수 이해와 활용)와 교과(국어, 수학, 영어)의 보정자료가 제공된다. 학교급별로 활용되는 보정자료가 다른 만큼 연수도 학교급별로 나눠 1차는 중등 학습지원 담당교원 대상, 2차는 초등 학습지원 담당교원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학습지원 콘텐츠 활용 전문성을 높이고, 콘텐츠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교원 연수와 학교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성과평가 '최고'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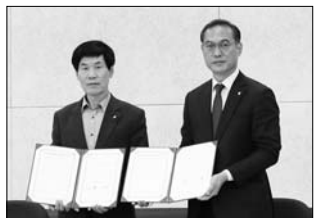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김민호·이하 GTEP사업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전국 20개 대학 GTEP사업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GTEP사업단은 올해 국고 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억 3,900만원으로 사업단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GTEP사업단은 지난 한해 16기 35명의 학생들이 모두 40회 수출 박람회 참가해 40개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조사와 통번역, 국내외 박람회 참가, 수출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이같은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이 250만 달러(USD)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35명 중 10명의 학생이 무역전문가 인증을 받아 향후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전문가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대동제, 지역과 함께

개막식 열고 3일간 열전 돌입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0일 오후 6시 대운동장에서 대동제 개막식을 갖고, 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온전하게 열리는 첫 축제인 이번 대동제는 무대 공연과 버스킹 등 각종 문화행사, 부스 행사, 이차량 놀이거구 등 체험형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공연에는 첫날 가수 10cm와 기리보이, 털보이, 소수반이 무대에 오른다. 다음 이드와 싸이는 두 번째 날인 11일 무대에 오른다. 이어 마지막 날에는 김나영과 로시, 풀킴 등이 마지막 축제의 밤을 수놓는다. 뿐만 아니라 알뜰의 거리에는 각종 놀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푸드존과 DIY 부스, 액티비티 부스, 학생 동아리 부스 등이 마련됐다.

구정문 알뜰의 거리에는 창업 학생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제작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도 운영되고, 지역 업체들이 입점해 지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시장과 축제를 즐기며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휴식존 대학 곳곳에서의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3일 내내 이어나간다. 특히 전북대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됨에 따라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행사 2주 전부터 전북경찰청과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덕진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계도활동과 응급처방 배치 등을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진안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과 협약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0일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홍삼(인삼), 약용작물, 곤충과 관련된 사업을 창업하려는 액션 그룹을 발굴 및 육성하고, 사업 기반을 구축해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진안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 산학협력단 김상진 단장과,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김남기 단장을 비롯한 헬스푸드 아카데미 2기 교육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진안군의 핵심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 여건을 조성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진 단장은 "진안군 산학협력플러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진안군 헬스푸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역과 협업하고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을 위해 학교의 역량을 집중시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영어트랙 개설 학과 지정

예술심리치료학과·영어영문학과 등 2개 학과 2학기부터 학부·석사과정 외국인 학생 모집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와 영어영문학과가 영어트랙 개설 학과로 지정돼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부 및 석사과정 외국인 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어트랙이란 모집 단위를 신입생, 교환학생, 편입생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별도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 능력을 검증해 선발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100%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한다.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이 영어트랙에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영어성적은 TOEFL iBT 71, IELTS 5.5 이상이다.

이에 예술심리치료학과 영어트랙은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표현예술치료 전공으로 구성됐다. 또 영어영문학과 영어트랙에 선발된 외국인 학생들은 시, 드라마, 신문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분석·평가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력 및 이론 학습과 문화 이해력, 비즈니스 영어 등 영어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준 높은 영어 수업도 제공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세계잼버리 제4회 전국태권도 경연대회 1위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체육학과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4회 전국태권도 경연대회'에서 태극단 종합경연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된 이 대회는 지난 3일과 6일 이틀간 부안실내체육관과 마실축제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전주비전대를 비롯해 총 10개 대학 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이에 전주비전대 태권도체육학과는 4학년 이수용 학생의 14명으로 한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했다. 고흥수 태권도체육학과 학과장은 "전주비전대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 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안군 태권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바베큐 나눔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10일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바베큐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바베큐 파티를 열고 우병훈 부총장 및 교직원들이 직접 셰프로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에서 온 어학연수반 학생부터 본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해 풍성한 파티 타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유학생 황민광(자동차로봇학과 2년)은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위해 바베큐 파티를 열어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힘을 내 유학생들을 잘 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병훈 부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학생들이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하는데 위로와 격려를 받아 즐거운 유학생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